

시작·정착에 재기까지 ... '현장 맞춤' 진화하는 농지은행



프리즘

이정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이정민

최근 농지은행이 개최한 청년농업인 참여수기 공모전에는 농업을 시작하고 성장해 온 청년농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농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청년농, 농지은행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서 첫 농사를 시작한 청년농,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가공과 기술을 더해 판로를 개척한 청년농까지 모습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농업에 대한 열정

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펼칠 농지가 없다면 도전의 첫발조차 떼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농지가 단순한 생산 수단을 넘어 농업인의 시작과 정착, 성장을 좌우하는 기반임을 보여준다. 농업인은 처음 농업에 진입할 때뿐 아니라 영농을 이어가고 규모를 확대하거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지 문제를 마주한다. 즉 농지은행 제도 역시 현장의 변화와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청년농

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을 개선했다. 공사가 농지를 먼저 매입해 장기간 임대한 뒤 대금 상환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비 이의 작물 재배 시 임대료를 감면하고,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하면 최초 2년간 이자를 면제토록 했다. 월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설치도 허용함으로써 청년농이 영농계획에 맞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선의 대상은 청년농에만 머물지 않았다. 기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경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친

환경 농지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때 적용되는 환매 조건도 개선해 재기의 부담을 낮췄다. 농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시작할 기회를, 영농을 이어가는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기반을, 위기를 겪는 농가에는 다시 일어설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방향이다.

농지를 찾는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농지은행포털에 개설한 농지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농지은행 보유 매물뿐 아

니라 개인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다. 지도와 사진, 로드뷰, 재배작물 정보 등을 제공해 지역 인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국의 농지 정보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수기 공모전 속 청년농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다. 농지은행은 앞으로도 첫 농지를 찾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정착, 위기 극복 그리고 은퇴에 이르기까지 항상 농업인과 함께하겠다.